

# 세계유산이란

1972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이 조약에 의거해 후세까지 이어 나가야 하는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문화와 자연의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려면, 자산이 뚜렷하고 보편적 가치(국경이나 시대를 넘어, 인류에게 둘도 없는 가치)가 있을 것, 미래에 물려주기 위해 보존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후지산을 미래에 계승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은 관계시정촌이나 관계단체와 협력하여 후지산의 자연을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키우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서 등록된 후지산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후지산 보전 협력금

세계의 보물, 후지산을 미래에 계승하기 위해서 등산객에게 후지산 보전 협력금의 협력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협력금은 후지산의 환경보전이나 안전 대책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발행 후지산 세계문화유산협의회

야마나시현 후지오카마치 미노부초 니시가타마초 오시노무라 이마나카모라 나루사와부라 후지카와구치코마치  
후지요시다시 와 2개촌 읍서 현유재산 보호조합 나루사와, 후지카와구치코 읍서 현유재산 보호조합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누미즈시 미시마시 후지노미야시 후지시 고텐바시 스소노시 시미즈촌 나가이즈미초 오아마초

## 아마나시현 관광문화부 세계유산 후지산과

우) 400-8501 야마나시현 고후시 마루노우치 1-6-1  
Tel. 055-223-1330 Fax. 055-223-1438 E-mail fujisan-hz@pref.yamanashi.lg.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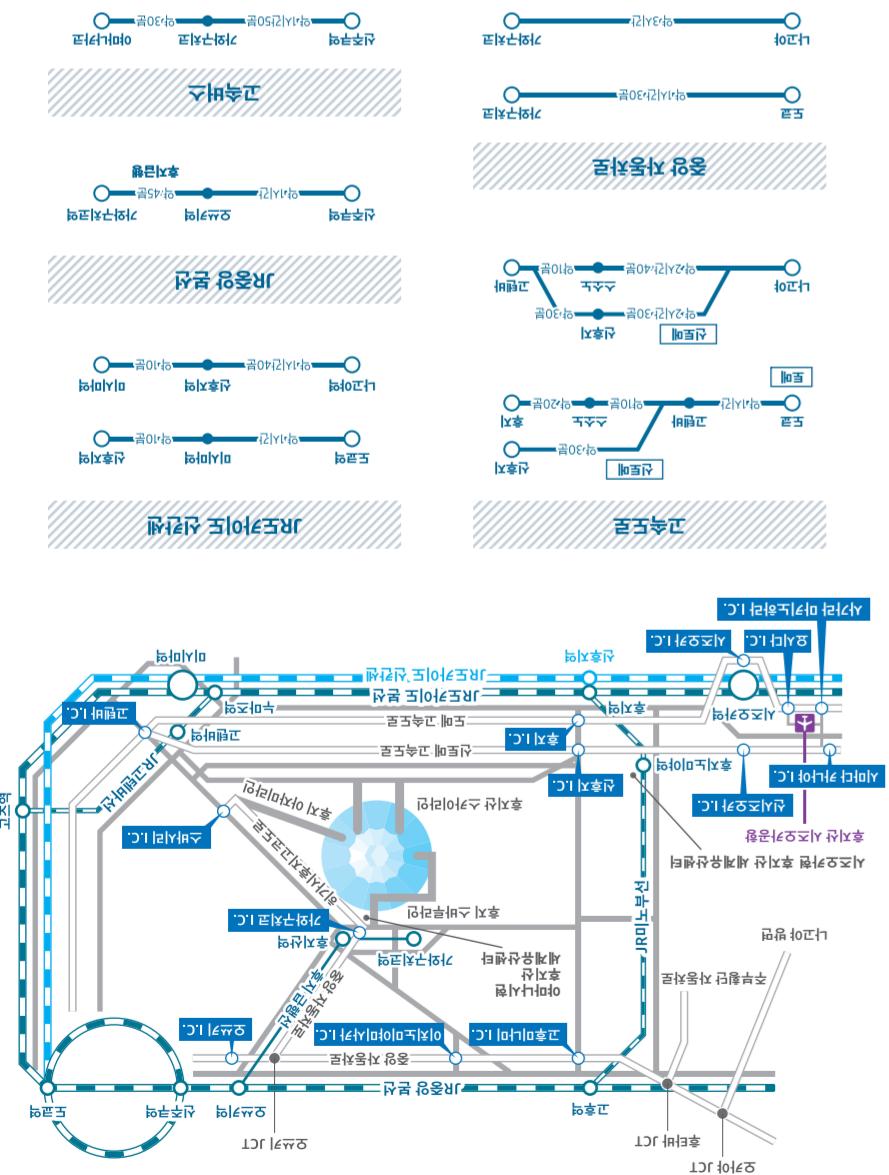
## 시즈오카현 스포츠·문화관광부 후지산 세계유산과

우) 420-8601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 오테마치 9-6  
Tel. 054-221-3746 Fax. 054-221-3757 E-mail sekai@pref.shizuoka.lg.jp

## www.fujisan-3776.jp

## 편집 협력

인형 NPO법인 후지산 세계유산 국민회의



## 후지산 세계유산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 후지산 세계유산

# 세계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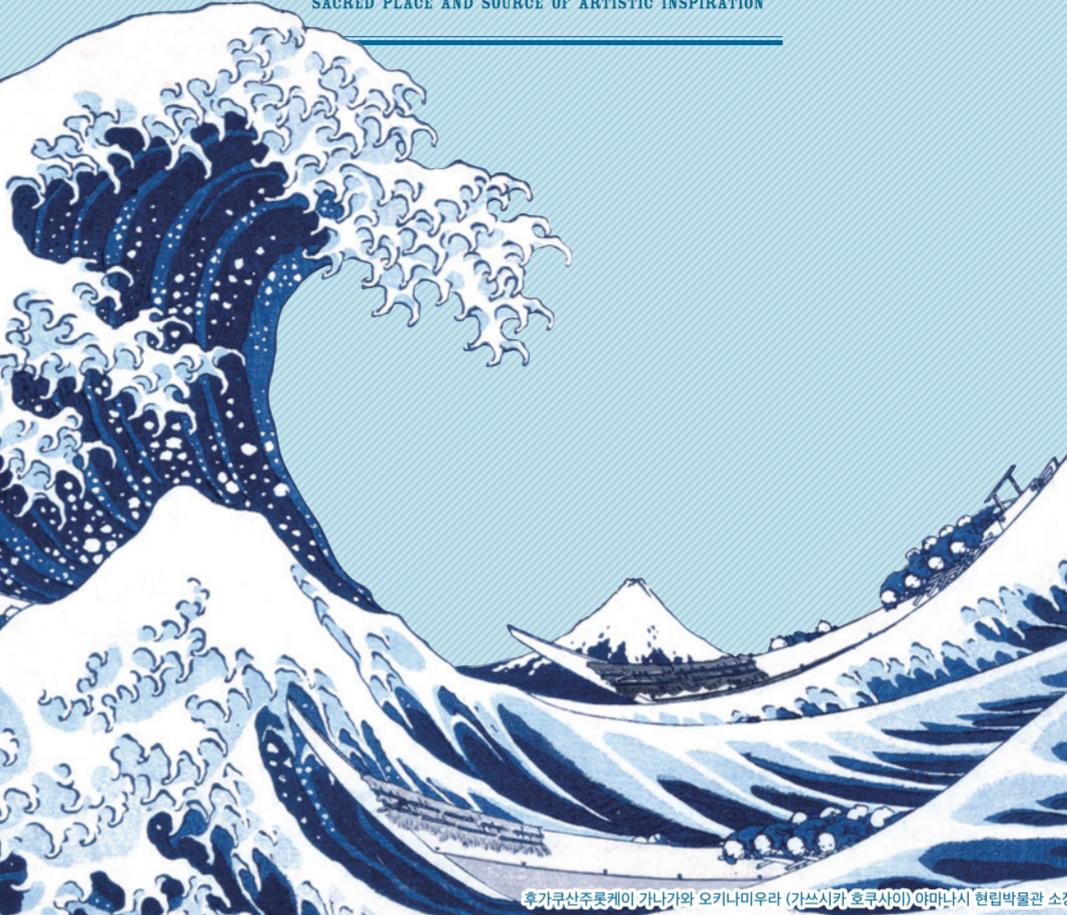
WORLD HERITAGE

# 후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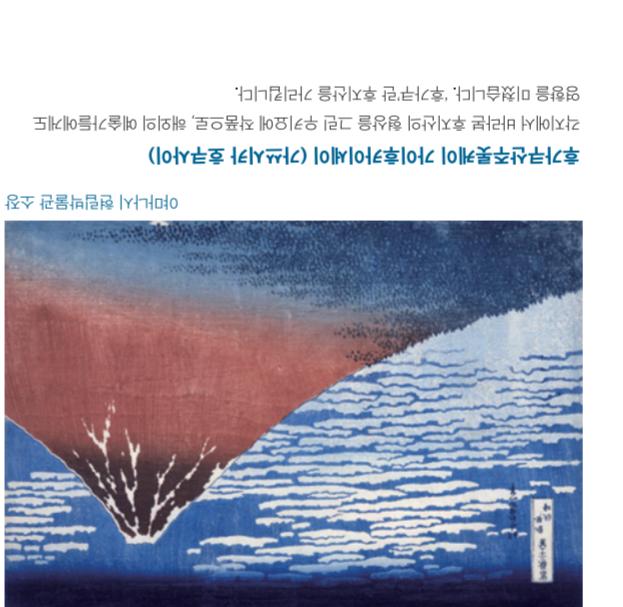
FUJISAN

##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

SACRED PLACE AND SOURCE OF ARTISTIC INSPIRATION



후기쿠산주종케이 가나카와 오카나미우라 (안쓰시가) 후쿠시마 애마나시 힐립박물관 소장



후기쿠산주종케이 가나카와 오카나미우라 (안쓰시가) 후쿠시마 애마나시 힐립박물관 소장

## 세계유산이 된 후지산

일본 제일의 높이(海拔 3,776미터)의 활화산, 후지산.  
2013년 6월에 제37회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후지산 - 신양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이라는 명칭 하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후지산이 '신양의 대상'이나 '예술의 원천'으로서, 일본인의 자연관이나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화를 반복하던 산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후지산은 후지코라 불리우는 신양진단과 우키요에의 등장 등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신양과 예술을 통해서 공생하는 모습은 후지산이 갖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문화에 관계가 있는 25개소로 구성된 후지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미래에 이어 나가야 할 세계의 보물로 인정한 것입니다.



후기쿠산주종케이 가나카와 오카나미우라 (안쓰시가) 후쿠시마 애마나시 힐립박물관 소장

## 후지산 세계유산

## 후지산 세계유산



## 문화의 시대

### —후지산 신앙의 시작—

그 옛날, 후지산 기슭에서는 후지산에 대한 전망을 의식하여 취락이나 제사의 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경, 사람들은 거듭된 분화를 불의 신 '아사마노오카미'의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기술에서 산정상을 우러러보고 숭배하는 '요래'의 관습이 생겨나 각지에 오바소(1-6) 기타구치후지센겐 신사, 3 야마미야센겐 신사(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후지산은 800년 이후, 대규모 분화를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산기술 각지에 아사마노오카미를 기리는 2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사나 7 가와구치아사마 신사, 8 후지 오무로센겐 신사 등이 건립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만요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카집, 개인인 아마베노 아카히토가 '다고노우라(시즈모가시 시미즈구의 유이·간バラ 일대의 해안 균처)'를 지나, 넓은 장소에 나가보니 '새 하얀 후지산의 높은 산봉우리의 눈이 쌓여 있었다'라고 후지산의 이름다음을 읊었습니다.



**소토쿠 태자 그림  
(1069년)**

하타노자이/소토쿠 태자 그림, 3면(부분)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Image: TNM Image Archives



기타구치 혼구후지센겐 신사

아사마노오카미가 모셔져 있던 오베소를 기원으로 하여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는 센겐 신사. 후에, 오시다구치 등 산로의 기점으로서 후지코와 함께 발전한 신사입니다.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사

전국의 센겐 신사의 충분사. 분화를 잡아 두기 위해 아사마노오카미를 숭배하는 것을 기원으로 하여 800년에 현재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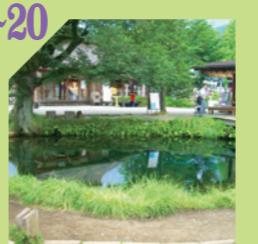
야마미야센겐 신사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사의 충분사. 분화를 잡아 두기 위해 아사마노오카미를 숭배하는 것을 기원으로 하여 800년에 현재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오ishi 주택

(구 도가와 주택, 오시노 주택) 후지산의 용수에서 갈라져 나온 8개의 물(와쿠이케, 니고리이케, 가마이케, 조시이케, 쇼부이케, 소코나시이케, 오카마이케, 대구치(케)의 총칭).



오시노호카이

용암류가 수목을 훔들어 생긴 용암수형 중, 내부가 인간의 배속과 닮은 것을 타이나이주케이라고 부릅니다. 후지코 신자가 '타이나이메구리'라고 하는 신앙활동을 행했습니다.



후나쓰타이나이주케이 오시다타이나이주케이

용암류가 수목을 훔들어 생긴 용암수형 중, 내부가 인간의 배속과 닮은 것을 타이나이주케이라고 부릅니다. 후지코 신자가 '타이나이메구리'라고 하는 신앙활동을 행했습니다.



## 후지코와 성지순례

### —후지산 신앙의 융성—

17세기가 되자 후지산에서 수행한 하세가와 가쿠교를 시조로 하는 후지산 신앙 '후지코'가 탄생하였습니다. 가쿠교가 수행하였다고 하는

22 히토아나후지코 유적이나 24 시라이토노타키, 1-8 소지코,

1-9 모토스코, 21 암마나카코, 22 가와구치코, 18~20 오시노호카이, 21

후나쓰타이나이주케이, 22 오시다타이나이주케이 등 산 기슭의 영지를 둘러보면서 후지산을 숭배하는 '순례'의 신앙형식이 형성됩니다.

18세기에는 후지코가 서민들에게 폭발적으로 유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성지 둘러보는 순례로는 후지산의 구성자산이 된 산 기슭의 센겐신사나 각지, 구 유적들과 연결되는 길로써 많은 신자가 왕래했습니다. 또한 등신로에서는 신자를 안내하거나 돌봐주는 승려가 거주하는 3 10 오시 주택이 발달하였습니다.



후지산의 순례로도 19세기 중엽의 모습

후지산의 순례로는 순번대로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후지코의 융성과 함께 많은 순례로가 정비된 19세기 중엽의 순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수도자와 후지등반

### —후지산 신앙의 대중화—

12세기경이 되어 후지산의 분화활동은 진정되었습니다. 수도자라고 불리우는 종교인들은 후지산을 산악수행의 땅으로서 후지산의 신불에서 영력을 얻기 위해 산정상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1-1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그 중에서도 후지산에서 수많은 등반 수행을 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마쓰다이 쇼닌입니다. 마쓰다이는 산정상에 다이니치지를 건립하여 남쪽 기슭의 무라이아마에 후지산 고호지(현재의 4 무라이마센겐 신사)를 건립했다고 하며, 많은 종교인들이 수행의 거점으로서 이용했습니다.

14세기 이후에는 순례자라고 불리우는 서민 신자들도 수도자를 따라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입구에는 센겐 신사(5-8 스야마센겐 신사, 9-10 후지센겐 신사 등)를 거점으로 하는 각 등산로(1-2 오미야, 무라이마구치 등산로, 1-3 스야마구치 등산로, 1-4 스바시리구치 등산로, 1-5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정비가 이뤄짐과 동시에 각 등산로에서는 신자를 맞이하는 취락이 형성되었습니다.



후지 미호세케이-지  
후지산과 25 미호노마쓰바라, 세렌지(시즈오카현 시즈오카구의 세 곳) 구도에 넣은 수목화 세렌지 소장



산정상의 신앙유적군

수도자의 등배가 시작되자 산정구 볍을 따라 신양의 거점이 세워졌습니다. 분화구 주변에 있는 8개의 불우리를 국락정로를 의미하는 어덟개의 꽃의 연꽃으로 보고 일주하는 '오하치메구리(후지산 분화구 순례)'도 행해졌습니다.



무라이마센겐 신사

마쓰다이소님이 수행로의 거점으로 잡은 센겐 신사. 후지산 혼구센겐 타이사(현제의 후지오무로센겐 신사)를 거쳐 산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많은 수도자가 이용하였습니다.



스야마센겐 신사

스야마구치 등산로의 기점이 된 센겐 신사. 이 길은 호에 대부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바시리구치 등산로

얼라구 대문화로 80년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센겐 신사.

스바시리구치 등산로는 후지코 신자의 순례에 이용되었습니다.



요시다구치 등산로

기타구치 혼구후지센겐 신사를 기점으로 하여 현제에 도로 산정상에서 산 정상까지 도보로 등반할 수 있는 유일한 등산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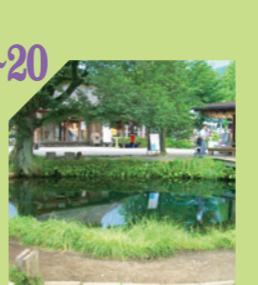


미호노마쓰바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후지산의 모습은 많은 예술가们都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요수' 이후의 많은 와카집에 등장하여 요코쿠·하그로모의 무대나 우쿄요에의 소재로 다뤄졌습니다.



오ishi 주택

(구 도가와 주택, 오시노 주택) 후지산의 용수에서 갈라져 나온 8개의 물(와쿠이케, 니고리이케, 가마이케, 조시이케, 쇼부이케, 소코나시이케, 오카마이케, 대구치(케)의 총칭).



오시노호카이

용암류가 수목을 훔들어 생긴 용암수형 중, 내부가 인간의 배속과 닮은 것을 타이나이주케이라고 부릅니다. 후지코 신자가 '타이나이메구리'라고 하는 신앙활동을 행했습니다.



모토스코

용암류가 수목을 훔들어 생긴 용암수형 중, 내부가 인간의 배속과 닮은 것을 타이나이주케이라고 부릅니다. 후지코 신자가 '타이나이메구리'라고 하는 신앙활동을 행했습니다.



시라이토노타키

후지산의 신산층에서 뿐어서 높은 물이 흘러오는 일목. 하세가와 가쿠교가 등골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깨끗이 한 곳으로 여겨져서 후지코 신자들의 순례의 장이 되었습니다.



## 후지산 등산의 다양화

### —근대화와 후지산 신앙—



산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돋이  
©주식회사 플렉 연구소



19세기말 이후, 후지산 주변지역에 철도 및 자동차도로가 정비되어 5학도(5부 능선)에서 등산하는 방법이 개선됨으로써 관광 등 후지등반에 대한 동기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산정상 등에서 '해돋이'를 보며 절하고, '오하치메구리(후지산 분화구 순례)'를 하는 등, 후지산에 대한 신앙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말 이후, 후지산 주변지역에 철도 및 자동차도로가 정비되어 5학도(5부 능선)에서 등산하는 방법이 개선됨으로써 관광 등 후지등반에 대한 동기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산정상 등에서 '해돋이'를 보며 절하고, '오하치메구리(후지산 분화구 순례)'를 하는 등, 후지산에 대한 신앙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말 이후, 후지산 주변지역에 철도 및 자동차도로가 정비되어 5학도(5부 능선)에서 등산하는 방법이 개선됨으로써 관광 등 후지등반에 대한 동기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산정상 등에서 '해돋이'를 보며 절하고, '오하치메구리(후지산 분화구 순례)'를 하는 등, 후지산에 대한 신앙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